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미리 알려드립니다



최명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특정인에 사용 금지된 의약품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문제 의약품 사용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요즘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사극 드라마 ‘동이’에서 중전께서 드실 탄약을 기미 하던 중 은수씨가 변색되는 일이 발생하는 데, 그 원인이 약제별로는 문제가 없으나, 두 가지 약제가 혼합되면서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혀지는 내용이 방영되었다.

이처럼 음식이나 한약에서 서로 궁합이 맞지 않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잇듯이 병용 금기 약곡에서 처방·조제 받은 약도 마찬가지로 다.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 성분조합, 즉 병용 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을 건강보험법에 의거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은 그 보고건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로, 의약품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약품, 수술 등)의 발생은 물론 생산성 손실, 사회적 간접비용 파생 등의 문제까지 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평가원의 평가결과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3.87개(’09년 하반기)로 선진국의 1~2개에 비하여 약품목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물 상호작용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더 크다고 하겠다.

미국은 매년 약 10만명이 약물유해반응으로 사망하며, 이는 흡연, 음주, 총기사고 등에 의한 국민보건상의 문제보다 큰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Lazarou J, et al. JAMA, 1998). 우리나라는 이러한 금기/약물 투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용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을 지속

적으로 공고하고 처방·조제를 제한하여 왔으나, 매년 연평균 2만 건 정도가 환자에게 투약되고 있어 국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진료가 끝난 후 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한 내역을 통해 금기/약물을 투약받은 환자에게 투약내역을 통보하여 왔다. 그러나 환자가 이미 약을 먹고 난 후에야 금기약 복용을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2008년 의약품 사전점검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 ’08년 4월부터 DUR 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 Drug utilization review)”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었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함께 복용하면 안 되거나, 특정 연령대 및 임신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등의 정보를 의사나 약사의 처방·조제 시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문제 의약품 사용 여부를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의사·약사가 처방·조제하는 약품명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금기 여부, 급여종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 해당 약품임을 알려주는 알림 창(Pop-up)이 뜨게 되며, 의사 약사는 이를 확인하여 사유를 기재하거나 의약품을 변경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약물을 같이 투여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치료효과와 상실을 초래하는 ▲약물 상호작용을 비롯, 임신 또는 임신 가능 환자에게 투여 시 태아가

형, 태아 독성 등 치료상의 유익성보다 위험성이 높아 임부에게 투여 금기인 ▲투여 금기(임신), 약물의 약리작용이나 대사과정의 특성상 소아나 노인환자에게 투여가 권장되지 않는 약물 특정 연령대 금기 ▲식약청의 안전성 확보 또는 품목허가 취소 등으로 보건복지부가 급여 중지한 의약품 ▲저 항량 배수처방조제 ▲중복 약물 등 5항목에 대한 점검을 제공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 같은 의료기관 내 동일처방전에 대한 사전점검에 이어, 같은 의료기관 내 다른 진료과목 간 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각각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병용 금기나 중복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환자가 이미 복용하고 있는 약과의 약물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와 제주도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올 12월부터 처방전 간 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은 약이 중복은 아닌지, 함께 먹어도 안전한지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하고 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의료의 질 및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나로호 실패원인 명확히 규명돼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가 예정된 궤도 진입에 실패 시 실패했다. 어제 오후 5시1분 발사에 환호했던 국민들은 발사 137초 뒤에 나로호와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나 로켓에 문제가 발생해 비행 도중 추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10번째 ‘우주 클럽(Space Club)’ 합류 국가가 될 것인 국민의 여망은 일단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1차 실패를 교훈 삼아 철저한 보안과정을 거쳤으나 우주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진정한 우주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우주기술 자주독립이 시급한 과제다. 한국은 1992년부터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으나 모두 외국의 우주센터에서였다.

그렇다고 낙심은 금물이다. ‘우주강국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우주개발은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도 첫 우주발사체 발사에서 성공한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비록 나로호 발사는 실패했으나 로켓의 설계 개발 조립 운영 등 발사 전 과정에 걸쳐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것은 향후 우주개발의 후속 작업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로호의 부품 가운데 러시아에서 제공한 1단 로켓을 제외한 2단 로켓, 연료통, 위성 본체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160여 개 국내 기업이 발사체 제작에 참여한 것도 산학 협동을 통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우주개발은 국가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첨단 기술 개발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우리가 우주기술 자립과 우주개발에 꼭 성공해야 하는 이유다.

전남 시군의장단 ‘막판 외유’ 당장 취소하라

조만간 임기가 끝나는 전남 기초의회 의장단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다고 한다. 특히 이들 중에는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의회 가운데 보성군 등 16개 의회 의장과 수행직원 등 총 32명이 오는 13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와 황룡, 구제구 지방을 둘러 볼 예정이다. 여행경비는 의장의 경우 의장단협의회비로 1인당 130만원씩, 직원들은 해당의회 예산에서 전액 지원된다.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뿌리깊은 병폐이긴 하지만 이번 기초의회의장단의 외유는 후안무치(厚顏無恥)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들의 방문지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한다는 유명관광지로 채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임기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6명의 의장 중 13명이 지방선거에서 경선 탈락, 낙선, 또는 불출마자들

이어서 의정활동에 반영할 길조차 없다. 위로서 관광 외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군의장단은 최소한 양심과 상식이 있다면 이번 외유 일정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혈세를 아무런 명분도, 실익도 없는 관광성 외유에 낭비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언제까지 지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예산을 짤 때부터 그런 항목 자체를 없애야 한다. 사후에도 관광유형성 시찰로 밝혀지면 징계 처분과 함께 낭비한 예산도 자기 돈으로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도 새로 당선된 지방의원들도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유혹을 떨치지 어려운 만큼 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방의원 외유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낭비성 외유를 차단하는 한 방법일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종교칼럼

이영현



가끔씩 얘기를 나누며 되새겨보곤 하는 말이 열린 떠오르는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다. 이 말은 각 사람의 운명이 이른바 예정설과는 무관하고, 개인의 생각, 행동, 습관, 성격과 오히려 관련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의 궁극을 풀거나 운수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보곤 하는 ‘도정비결’이나 ‘점괘록’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요한 4,7-10).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 구원으로의 예정과 섭리로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밝은 생각에 대한 확신과 깨어있는 삶에 기초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과 화해토록 하시며(2코린 5,17-19) 당신께 이르도록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다(요한 14,6).

밝은 생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은 오랫동안 우리 민중의 운명관을 지배해온 책이다.

이는 세상만사가 어떤 운명이나 초인적인 힘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런 사고방식은 사주를 보거나 운명으로 돌리는 일상적인 표현(운명적 사랑과 만남 등)에서도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 민중에게는 인간의 운명이 예정설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이 주장했던 것처럼 세상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저주를 미리 정하셨다는 극단적인 견해를 단순히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나 공적(功績)을 간과하며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톨릭교 신자들은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섭리(攝理), 곧 하나님의 배려와 보살핌 안에 있고(마태 6,31-33),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인간의 자기완성 행위에 선행(先行)한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발적인 동이나 자유의지가 존중되고, 인간의 책임이나 공적에 앞선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과 섭리로 함께한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예정 여부나 인간의 궁극적 운명은 밝은 생각과 깨어있는 삶으로 드러나며 입증될 수가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마태 13, 37)도 이를 반증해준다.

사실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은 희망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이해와 수용을 전제로 하고,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하며, 생각과 마음이 밝고 건전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엄연한 진실을 왜곡하거나 교란하며 경계망중한 한탕주의나 무책임한 오만독선과 언행이 난무하는 요즘 세태는 몸시 씁쓸하고 안타깝기만 하니, 참된 구심점을 향한 밝은 생각과 열린 마음으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함께 살아보자고 외치고 싶다.

매사를 팔자소관이나 운명론으로 돌리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체념하는 따위나 그저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 하는 것은 몽매한 소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광주 치평동 성당 주임신부>

기고

김경모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재판결과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를 반영하여 결국 소송당사자들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선진형사정책이다. 이렇듯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재판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춘천지방법원

한 20년이 넘게 판결전조사를 실시해 온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 대해 법원이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보호관찰소에서는 2006년부터 심리학박사 및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 등을 선발하여 조사전문요원으로 배치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며, 2007년부터 보호관찰소 내에 조

재판 만족도와 판결전 조사

에서는 소송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재판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조사 결과 법정 내에서의 법원의 언어 사용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의사항으로 답변시간을 늘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렇듯 답변시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간 사법부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여 왔고, 그러한 시도 중 하나가 판결전조사의 활용이다. 판결전조사란 범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육관계, 성장과정, 가족사항, 피해회복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요구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의 입장과 피해자의 의견을 재판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판결전조사는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한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가 2000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법원의 긍정적이고 성숙된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사건담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조사의 전문성과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판결전조사제도는 소송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재범을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나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판결전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재판관은 범죄자에게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과 같은 사회내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심성을 교화하고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즉 범죄자에 대한 확실적인 처벌보다는 범죄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그를 사회에서 다시 끌어안을 수 있도록 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판결전조사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판결전조사가 소송당사자의 재판만족도를 높이고 범죄자 특성에 맞는 처우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판결전조사가 재판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광주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無等鼓

드디어 내일 밤이다. 월드컵 사상 최초로 원정 16강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본선 첫 상대인 그리스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펼친다.

그라운드에서 나서는 선수들의 투혼과 각오는 남다른 것이다.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2002년 4강진화의 재현을 위해, 그리스 선수들은 ‘유로 2004 영광’을 되찾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맞붙을 그리스는 어떨까. 한국이 2002년 4강의 기적과 동시에 전국민이 붉은악마로 변신했던 그리스는 유로 2004 우승 당시 비수한 경험을 했다. 그리스는 홈팀 포르투갈을 개막전과 결승전에서 연달아 격파하면서 우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때부터 그리스 대표팀의 별명은 ‘해적선’이 됐다. 또 이때 이 해적선을 따라다니는 열혈 마니아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그게 바로 ‘갈라노레우코스 파로스(블루·화이트 등대)’다. 해적선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깨닫는 의미다. 이 등대 서포터스는 유로 2004 기간 중 크레타 하나리아 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처음엔 하나리아 지역 주민 160명

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 전 지역으로 확대돼 약 320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서포터스의 응원인 ‘붉은악마’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끈다. 등대 서포터스의 주도하에 그리스 국민이 펼칠 응원 또한 열정적인 국민

성만쯤이나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5000만 ‘붉은 악마’는 힘과 기를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우리의 열정과 기백을 응원에 담아 태극전사들의 심장 깊숙이 박히게 해야 한다. 블루·화이트 등대를 넘어 해적선을 격침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한민국’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등대를 넘어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92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